



프리토리아·케이프타운 대륙의 끝에서 희망을 외치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은 아프리카의 유럽? 아프리카 순회특파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찾은 국가는 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아프리카 6개국을 거치는 동안 '남아공에 꼭 가봐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한국인이나 현지인이나 남아공을 경험한 이라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글·사진 김수진 아프리카 순회특파원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차를 타고 행정수도 프리토리아로 들어가는 내내 사람들이 왜 그토록 남아공에 가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공항의 규모, 잘 포장된 도로, 그 위를 달리는 세계 유명 브랜드 자동차, 슈퍼마켓부터 명품 상점까지 없는 게 없는 쇼핑센터... 무엇보다 백인이 아주 많았다. 공항으로 픽업을 나온 기사도 백인이었다. 아프리카에 온 뒤 처음 겪는 일이었다. 17세기 중반부터 정착을 시작해 이제는 남아공 국민의 약 10%를 차지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곳이 유럽인가?'하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

백인 정착 역사의 산증인 '보르트레커 기념관'
남아공에 이주한 백인의 역사는 도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프리토리아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우뚝 선 보르트레커 기념관(Voortrekker Monument)이다. 1948년 40m 높이로 완공된 이 기념관은 네덜란드 이주민인 보어인 개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1838년 영국의 지배에 놓인 케이프타운에서 벗어나 정착지를 찾아 헤매던 중 오늘날 프리토리아 일대에 도착했다. 보어인들은 원래 이곳에 살던 남아공 줄루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정착에 성공했다. 보르트레커 기념관은 이를 기념하고자 그 후손들이



1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케이프타운의 모습. 2 보르트레커 기념관 외부 전경. 3 유니언 빌딩 앞에 세워진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거대 동상. 도시를 품으려는 듯한 모습이다. 4 유니언 빌딩.

세운 것인데 기념관 내벽에 당시 정착 과정이 부조로 표현돼 있다. 정착한 백인들은 오랜 기간 남아공의 권력을 독점했다. 가장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인종차별정책)다. 사실상 백인 정착과 함께 시작된 아파르트헤이트는 1940년대 후반 백인 후손 아프리카너(Afrikaner)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당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더욱 강화됐다.

거대 만델라 동상이 있는 유니언 빌딩
백인의 남아공 지배 역사는 남아공의 청와대라 할 수 있는 유니언 빌딩의 탄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아공을 식민지배한 영국 출신의 건

축가 허버트 베이커 경이 1910년 이 빌딩을 설계해 3년 만에 완공했기 때문이다. 다소 아이러니하지만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되고 1994년 최초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곳에서 취임식을 했다. 유니언 빌딩 앞에는 9m 높이의 만델라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 마치 두 팔로 온 도시를 품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신들의 식탁' 테이블마운틴
여정은 프리토리아를 떠나 케이프타운에서 계속됐다. 케이프타운은 남아공의 입법수도지만 관광지로서 더 유명하다. 바다와 맞닿은 아름다운 항구와 해변, 이를 따라 줄지어 늘어진 고급 주택과 호텔, 레스토랑이 관광객을 유혹한다. 가장 먼저 테이블마운틴을 찾았다. 해발 1천 87m의 테이블마운틴에는 보통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데 바람이 심하거나 비가 많이 오면 운행을 하지 않는다. 이날도 강풍으로 사흘간 문을 닫았다 재개장한 것이라고 했다. 어쩐지 줄이 유달리 길게 느껴졌다. 약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케이블카에 탑승할 수 있었다. 인내심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정상에 도착해 케이블카에서 내리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왔다. 케이프타운의 아름다운 도심이 한눈에 보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는 햇빛에 반짝였





- 1 멀리서 바라본 테이블마운틴의 모습.
- 2 테이블마운틴에 오르는 케이블카.
- 3 테이블마운틴에 나타난 바위너구리.
- 4 테이블마운틴에서 사진을 찍거나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들.



5 희망봉(Cape of Good Hope·희망곶)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기차.
6 케이프타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프리카 펭귄.

다. 축구장 10배도 넘는 크기의 평원에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다. 한자리에 서서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평원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케이프타운을 360도로 관찰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도시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바빴다. 테이블마운틴을 암벽등반으로 오르는 젊은이, 도시락을 준비해와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도 보였다. 이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 뼘만 한 바위너구리 한 마리가 사람들 발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아프리카 대륙의 끝 희망봉에 서다

테이블마운틴에서 느꼈던 감동은 희망봉(Cape of Good Hope·희망곶)에서도 만끽할 수 있다. 영어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실 희망봉은 봉우리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뻗은 육지, 곶(cape)이다. 다만, 인쪽에 동네 뒷산처럼 봉긋한 바위 봉우리가 펼쳐져 있기는 하다. 한편, 희망봉이 아프리카 대륙의 끝이라는 것도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 희망

봉에서 동남쪽으로 160km가량 떨어진 아굴라스 곶이 최남단이다. 하지만 희망봉이 남아공 남서쪽 끝인 동시에 인도양과 대서양이 교차하는 지점인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사람들은 아굴라스 곶보다 이곳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희망봉은 1488년 인도로 가는 길을 찾으려던 포르투갈 항해사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폭풍우에 쫓겨 발견해 '폭풍의 곶'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인도 항로 찾기를 포기하지 않은 포르투갈 왕 주앙 2세가 '희망의 곶'이라고 바꿔 오늘에 이르렀다. 주앙 2세의 희망은 약 9년 뒤 포르투갈의 또 다른 항해사 바스코 다 가마에 의해 현실이 됐다.

더 이상 폭풍의 곶이란 이름을 쓰지 않지만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 높지 않은 봉우리를 오르는 동안 매서운 바람에 이따금 몸이 휘청거렸다. 바람에 날린 머리카락이 눈앞을 가렸다. 천천히 한발 한발, 강풍을 뚫고 봉우리 꼭대기에 도착하자 바위 경계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문득 수평선 너머에는 또 어떤 풍경이 있을까 궁금해졌다. 바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바위 경계 너머는 오직 허공뿐이었다. 새삼 아프리카 땅 끝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지난 3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해 남수단, 우간다,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를 거쳐 이곳까지 온 것이다. 거센 바람은 좀처럼 잦아들

줄을 몰랐지만, 역시 이곳은 폭풍의 곶보다는 희망의 곶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묵은 잡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가고, 그 자리에 지난 반년 아프리카에서 쌓아올린 추억이 자리를 잡았다.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한국을 떠나던 날, 배탈이 나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끔끔 앓던 밤, 에티오피아 친구들과 함께 전통 술을 마시며 어깨를 들썩이던 밤, 남수단 보르 유엔기지 내 난민캠프에서 졸졸 따라오던 어린이들, 자신들이 차려준 전통 음식을 맛있게 집어먹는 내 모습을 깔깔대며 지켜보던 우간다 농촌 아낙들, 한국 정부가 증축해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누워 있던 케냐의 어린 여성들, 1994년 집단학살 당시 희생된 이들이 모셔져 있는 르완다의 추모관, 끝없는 평원 탄자니아 세렝게티를 마음껏 뛰어다니던 얼룩말 무리... 확신 대신 흐릿한 희망을 품고 떠나온 아프리카. 그 희망은 여전히 선명해지지 않았지만 한 걸음 더 다가선 것만큼은 확실하다. ●